

朝鮮王朝 時代의 服色 및 染料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olors and Dyes of Clothes in Yi-Dynasty

明知大學 家政學科

講 師 李 明 姬

Dept. Home Economics, Myong Ji University

Lecturer; Myoung Hee Lee

<目 次>

I. 緒 論	IV. 朝鮮王朝時代의 染料事情
II. 朝鮮王朝時代의 服色	V. 結 論
III. 染料價	

<Abstract>

The white color i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color of clothes.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the Korean's pattern of wearing Baik-Eui can be found its origin from many people of North-East Asia in ancient time. The beginning of wearing Baik-Eui in Korea was at the age of tribes, and it was delivered to middle age, later on, to modern age near the end of Yi Dynasty.

The other charactics of the traditional color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Preferred light color to dark color and light blue was noble and worthy.
2. The kinds of color were not various.
3. Color was native and pure not including grey or other colors.

From the economical point of view, the first thing is that Baik Eui was primitive in it's color Though some say that wearing Baik-Eui is considered as a kind of worship of the Sun, yet we can also find that the very reason of it is that we had little dyes at that time. Especially the reddish dyeing materials were in short supply, so that they had been imported mainly from Japan.

I. 緒 論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染料 및 染色術이 발달하여 新羅 제42代 興德王 服飾禁制에는 纈纈(헝헝) 染이 나온다. 그것은 염색의 한 方法으로 2枚의 판에 같은 紋樣을 透彫한 후 그 사이로 감을 넣어 염색하는, 그 당시로서도 상당히 발달된 염색법이었다.

원래 中國에서 染色術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그것이 우리나라의 冠服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 日本에도 영향을 주어서 加工染, 描繪, 裁文, 摺, 刺繡, 纈纈, 臙纈, 紋纈 등 中國의 染色術이 日本에 와서 獨特한 영역으로 발전하게 된 바 있었다.

描繪는 筆彩色으로 金銀泥, 朱, 胡粉, 墨 등으로 그리는 것이고, 裁文은 文樣을 切抜하여 貼하는 것이며, 摺은 오늘날의 木版印刷式이었다. 또 臙纈은 蠟으로서 文樣을 그려 염색한 다음, 초를 빼어

무늬를 나타낸 것이고 絞纈은 실을 가지고 잡아매어 染色하는 것이니 상당히 發達된 染法들인 것이다.

李如星은 文獻 및 고구려 古墳 壁畫, 또 日本 正倉院이나 法隆寺에 소장되어 있는 實物 등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染法이 行하여 졌다고 한 바 있다.¹⁾

한편 三國史記에 보면 新羅時代에도 染色을 專門으로 하는 관서가 있기도 하였다. 즉 朝霞房 母 23인, 蘇芳典 母 6인, 染宮 母 11인, 摺染典 母 6인, 疏典 母 6인, 漂典 母 10인, 紅典 母 6인²⁾ 등이었다.

또 朝鮮王朝시대에도 經國大典에 의하면 染色관계 工匠類가 다음과 같았다. 즉 本曹에 於赤匠 4인 草染匠 6인이었고 또 尙衣院에 靑染匠 10인, 紅染匠 10인, 草染匠 4인이었으며, 濟用監에는 荷葉綠匠 2인, 黃丹匠 2인, 紅染匠 10인, 靑染匠이 20인이었다.³⁾

이상은 尙衣院에 소속된 綾羅匠이 105인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수이지만, 中央에서는 高度의 技術의 發展이 이루어져 최고급 染織物을 제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로운 手工業者가 아니고 國家에 隸屬된 手工業者였기 때문에 그러한 고도의 기술적 염색술이나 염직물들은 一般 庶人과는 無關한 것이었다고 한다.⁴⁾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白衣民族이라고 불리우리만큼 儀禮用的 官服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色衣着用이 흔하지 않았던 것이다.

本稿에서는 조선 왕조 社會의 全般的 服色 경향을 살피고나서, 當代의 染料事情을 論하고자 한다.

Ⅱ. 朝鮮王朝時代의 服色

조선왕조시대의 主된 服色이 무엇이었는지 알아 보면 鷄林志에 緇(黑)·玄·素·絳·緋·纈·縹(淺絳色)·縹(玉色)·縹(雅靑色)·黓(淺靑色)등을 基本으로 하였는데, 점차 染色이 발달되면서 中間色이 늘어, 연두색·草綠色·다황색·진황색·일남색·남송색·洋藍色·반물색·玉色·靑色·眞紅色·松花色·白色·洋草綠色·洋玉色·眞粉紅色·紫赤色·취월장색·희보라색·藍色·粉紅色·紫色·雅靑色·灰色·柳綠色·豆綠色·黃色·淡黃色·鴨豆綠色 등 다채로운 색깔이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閩合叢書나 宮中 衣櫥撥記 등에서 더 추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紅色·大紅色·品目色·雲白色·鵝黃色·갈매색·灰보라색·洋보라색·品藍色·연초록색·桃紅色·金鄉色·灰色·柳靑色·주황색·黑紫色·팔유청색·목단색·진보라색·駝色·취색·磻紅色·茜紅色·土紅色·木紅色·土黃色·靑玄色·柑茶褐色·茶割色·紫의色 등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색들중에서 한국인의 服色으로는 실제 무엇이 많이 쓰여졌을까. 이에 대한 資料로서 1927년 村山智順이 조사한 地方別 服色素가 있는데 다음과 같았다.⁵⁾

그는 “國民 대개가 白衣를 좋아하여 朝鮮服裝着用的 八割以上이 白衣를 입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그후 차츰 染色한 옷을 選擇하는 傾向이 늘어 赤, 靑, 黃, 水色 등이 많이 보이게 되

地方別 服色別	전남 木浦	전북 南原	경남 金浦	경남 晉州	경북 慶州	경북 安東	충남 扶餘	충북 槐山	경기 開成	황해 安岳	평남 平壤	평남 安州	평북 江界
白色	55	55	60	50	75	50	70	95	70	70	57	70	90
黑色	25	20	20	30	10	20	5	5	15	15	30	20	5
灰色	5	0	10	10	8	15	5	1	7	5	3	0	2
其他	15	25	10	10	7	15	20	1	8	10	10	10	3

〈百分比〉 〈其他는 紅, 黃, 綠, 玉色, 藍등의 色포함〉

었다고 하였다.

同 調査에서 白衣外에 有色衣를 입은 사람의 男女比를 보면, 男子는 30.4%, 女子는 69.6%로서 有色衣는 男子보다 女子가 더 많이 입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연령별로는 老年者보다는 幼年者가 더 많이 입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부족국가 시대부터

扶餘 在國衣尙白 自布大袂袍袴履革鞮⁸⁾

新羅…衣服略高麗百濟同 服色尙素⁷⁾

라 하였고 고려도경에도

臣聞 三韓衣服之制 不聞染色⁸⁾

이라하여 우리나라에서 의복에 염색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

舊俗女子之服 白紵黃裳 上自公族貴家 下及民庶妻妾 一概無辨

農商之民 其服皆以白紵爲袍 烏巾四帶 唯以布之精粗爲別 國家貴人退食私家 則亦服之⁹⁾

라 하여 女子들은 白紵袍에 黃裳을 입어 위로 公家貴族으로부터 아래로 民庶妻妾에 이르기까지 구별이 없었고, 農·商人들도 白紵袍를 입고 그 옷감이 고운 것, 거친 것 외에는 國家貴人과 庶人을 구별이 없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王常服烏紗高帽 窄袖緇袍 紫羅勒巾 間繡金碧 其會官士民 則加幘頭束帶 祭則冕圭 唯中朝人使至 則紫羅公服 象笏玉帶 拜舞柝踏極稱巨節 或平居燕息之時 則皂巾白紵袍 與民庶無別也¹⁰⁾

라하여 王도 平居燕息時에는 皂巾에 白紵袍였다. 그러므로 色衣나 文彩衣는 儀章文物의 상징으로서만 착용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조선왕조시대에는 무엇보다도 士大夫들을 상대로 수없이 내려진 白衣禁令이 당시인들이 白衣를 좀체로 벗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¹¹⁾ 조선왕조시대에 와서 白衣는 士大夫間에도 好着이 되고 오히려 士庶間에 儀禮的 服飾이 되고, 固着化되지 않았나 한다.

다음에 白·黑·灰외에 有色衣의 色別 着用度는 朝鮮王朝末의 宮中 衣衾撥記에서 알아본다. 이것은 宮中の 行事服인 관계로 一般人들과 거리가 있을 것이지만 有色衣는 일반 서민보다는 宮中 혹은 班家 부녀자들이 주로 입었으므로 참고로 하면

男子服은 總 131着중에서 玉色 50, 白 35, 藍

13, 분홍 7, 보라 5, 多紅 4, 南松 4, 豆綠 3, 草綠, 灰, 색등이 각 2, 黃, 미색, 靑玉, 주황이 각 1의 順이었다.

女子服은 總 301着중에서 分紅 83, 松花 63, 藍 59, 多紅 52, 南松 12, 玉 9, 초록 7, 豆綠 4, 보라 3, 紫赤 3, 색등 2, 갈매 2, 灰, 白, 연지가 각 1의 順이었다.¹²⁾

이상에서 男子 服色은 玉色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白色·藍色이었으며, 女子 服色은 分紅, 松花(연노랑), 藍, 다홍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單純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한국인의 服色의 특징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白色衣를 주로 많이 입었으며 그외에도 灰, 黑 등 無彩色이 많았다. 또 有彩色에 있어서는 호린색(淡色)인 玉色, 연분홍, 연노랑, 연두색 연灰色 등이 흔하며, 짙은 色은 原色的이며 鮮明한 색채였으며, 그중에 紅色, 藍色등이 대표적이었다고 하겠다.

Ⅲ. 染料價

한국의 전통적인 염료를 보면 주로 植物性 염료였다. 赤·黃·靑으로 大別해서 보면, 赤色 계통 염료에는 國화과의 紅花(잇꽃), 荳科(콩과)의 蘇木, 지치과의 芝草(자주색)가 있고, 靑色 계통 염료에는 蓼科(여뀌과)에 속하는 쪽이 있었다. 黃色 염료는 별로 부족하지 않았는데, 산초과의 黃蘗(黃栢), 꼭두서니과의 柎子(梔子), 생강과의 鬱金, 매자나무과의 黃蓮染, 느릅나무과의 槐花, 포아플과의 薑草 등이 있었고, 기타 축염, 완염, 발색용도의 助劑로서 糞水(灰汁) 백반, 어름, 오미자 등이 있었다.

다음에 尙方定例에 의한 色入染을 참고하여 各色을 염색하는데 쓰이는 染料와 그 所要量을 살펴보면,

紫의 吐紬는 每匹 芝草八斤, 黃灰木二十斤, 梅實壹斤으로 入染

大紅吐紬는 每匹 紅花十二斤 藜灰四斗 梅實十二斤으로 入染

柳靑吐紬는 每匹 三甫三多音 黃灰木十五斤으로 入染

草綠吐紬는 每匹 三甫三多木 黃灰木十五斤으로 入染

礬紅鼎紬는 每匹 丹木八兩 沈黃二兩, 白礬二兩
으로 入染

紫의糸는 每斤 芝草十三斤 黃灰木 壹同으로 入染
大紅糸는 每斤 紅花十三斤 黃灰四斗 梅實十斤으로

入染

草綠糸는 每斤 三甫三冬音, 黃灰木十五斤으로 入
染

紅紬糸는 每斤 丹木一斤 白礬 三兩으로 入染

大紅綿布는 每匹 紅花九斤, 藜灰三斗, 梅實八斤
으로 入染

靑綿布는 每匹 靑染값이 三錢이었다.

한편 1808년(純祖 八年)경에 간행된 萬機要覽 財
用編에 그 해의 染織物 및 染料의 價格을 참고하
면 다음과 같다.¹³⁾

多紅雲紋紗 70兩(이하 매필價)

藍色雲紋紗 56兩

草綠雲紋紗 56兩

鴉靑雲紋紗 70兩

水紬 36兩

白鼎紬 7兩

礬紅鼎紬 25兩 4分

白正布 7兩

生正布 7兩

白紵布 16兩

白綿布 18兩

大紅綿布 66兩 6錢 7分

白吐紬 21兩

紫의吐紬 46兩 8分

草綠吐紬 23兩 1錢 4分

大紅吐紬 91兩

間色吐紬 21兩 4錢

(당시 中米價는 한섬에 15兩)

다음에 染料價는

紅花 每斤에 1石, 삼남, 강원

芝草 每斤에 10斗 호남 10斗, 8斗, 강원 8斗

藍種 每斗에 8石 경기

白礬 每斤에 8斗 영남

黃灰木(노린재나무재) 每同에 8斗 경기

오미자 每斤에 5斗 호남, 강원

菖蒲末 每升에 6升 6合 7夕 경기

藜灰(명아주나무재) 每斗에 5升 경기

槐花 每斤에 10斗 경기

蠣灰(굴껍질재) 每斗에 7升 경기

桃皮 每個에 1升 경기

IV. 朝鮮王朝時代의 染料事情

우리나라에서 染料는 一般的으로 부족하여 高價
였으며, 많은 부분이 外國(倭)輸入品에 의존하여
왔다. 특히 紅色계통을 물들이는 蘇木(=다목, 丹
木)과 紅花(잇꽃), 또 紫色계통을 들이는 芝草
(=지치, 紫草)가 그러하였으며, 그것들은 朝鮮王
朝시대에 자주 論難되어온 服色禁制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것 같아

太宗實錄에는

命禁各道進獻器玩絳色 上曰 蘇木非本國所產 器
玩宜用質素¹⁴⁾

라고 하여 絳色을 들이는 蘇木이 本國所產이 아니
기 때문에 各道에서 진헌하는 絳色器玩을 禁하도
록 하였다.

世宗 8년 12월에는

禮曹據西平館手本啓 今來各人等進告 丹木海外
南蠻國所產 本國相距水路一年程 難苦貿易而來
今蘇紬一匹准二十斤過重 願改以十五六斤 請依
所願施行 從之¹⁵⁾

라 하여 蘇木은 倭人들이 가지고 오지만 실은 倭
產이 아니고 海外 南蠻國產이어서 本國과 海路 一
年餘걸리는 貿易이라 힘드니 蘇紬一匹에 丹木 20
근은 값이 너무 헐하니 15,6근으로 고쳐달라 하여
허락하여 준 일이 있었다.

이어 世宗 9년 2月 條에

司諫院上疏曰 崇儉去奢有國之良規 故奢侈之習
不可不禁也 芝草紅花雖本國所產 極爲稀貴 至若
丹木則全賴倭客興販 以資國用 今上自卿大夫下至
賤隸好著紫色 因此 紫色之價 一匹所染又直一匹
至於衣裏皆用紅染 丹木紅花之價 亦爲不賤 非惟
奢侈相尙等威無辨 物價騰湧 亦爲可慮 自今其紫
染則進上衣襖及關內所用外一皆痛禁 紅染衣裏則
文武各品及士大夫子弟外各司吏典外方鄉吏工商賤
隸亦令禁者 限以年月永斷奢華以辨等威 上命紫色
來庚戌年始禁之¹⁶⁾

라 하였다. 즉 崇儉하고 奢侈를 물리치는 것은 나라의 良規이므로 奢侈를 금해야 한다고 하면서 芝草와 紅花는 비록 本國所產이나 극히 稀貴하고, 丹木은 더군다나 오로지 倭人에게 의존해오고 있는데 이제 위로 卿大夫로부터 아래로 賤隸에 이르기까지 紫色의복을 좋아하여 一匹 染色하는 값이 또 一匹값이 들며 옷안도 모두 紅染하므로 丹木과 紅花값이 또한 비싸다고 하면서 紫染衣는 進上衣櫛나 關內所用의에는 금하고 紅染衣는 文武各品과 士大夫 子弟의는 일체 금하자고 한즉 王은 3년뒤인 庚戌년부터 금하자고 하였다.

또 世宗 20년 正月에

中樞院閔義生啓曰 商倭蘇大輸轉之弊甚巨 倭人貿易未易遽禁 禁本國蘇木人染則倭自無來市之弊矣 上曰 卿言是矣 然未可以一時之見遽禁 當令禮曹議之 豫則謂今興用雜染 則蘇木之染 不禁而自止矣¹⁷⁾

즉 倭商들과의 蘇木수입 폐단이 극심하지만 갑자기 禁하기는 쉽지 않으니 우리나라에서 蘇木染하는 것을 금하자고 아뢰었다. 王은 이에 갑자기 금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雜染法을 이용하면 금하지 않아도 저절로 금지될 것이라고 하였다.

中宗 13年 9月 條에는

諡院啓曰 我國服色紅紫不純 時服雅靑而非我土產勢不得常着 公會等處服色不齊 瞻視混雜...¹⁸⁾이라 하여 我國服色이 紅, 紫 純色으로 하지 않고 雅靑色인데 토산물이 아니라 항상 착용할 수 없으므로 公會등처의 服色이 혼란스럽다고 아뢰고 있다.

또 英祖實錄에는(25年 5月)

命翁主婚以紫草染燭先是用唐朱紅染之貢價倍蓰¹⁹⁾라 하여 심지어는 翁主의 婚姻에 쓸 燭까지도 朱紅이 貴하니 紫草로 대신하라고 하고 있다.

한편 蘇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中國에서도 貴重視하였던 모양으로

世祖實錄에(2年 5月 條)

蘇木非本國所產 明使索之甚切不可不 耳思 凡貿易毋過禁約 亦毋過濫²⁰⁾

이라 하여 蘇木이 本國所產이 아닌데 明使臣이 그것을 원하니 蘇木 貿易을 너무 禁하지도 말고, 너무 과하지도 말라고 하였으며,

世宗 8年 12月 條에도

肥州太守靚源昌 淸使人獻 鈔子捉子二具 紅黃光絹各一匹 鉛五十斤 蘇木二百 紺靑一百斤 回賜正布八十四匹²¹⁾

이라 하였다.

또 仁祖實錄에도(15年 1月 條)淸에 대한 歲貢品목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에 白苧布二百匹, 各色綿紬二千匹, 各色細麻布四百匹 各色細布一萬匹 布一千四百匹 등의 衣料品과 함께 蘇木二百斤이 포함되어 있다.²²⁾

이상의 紅色 계통 염료 외에도 草綠色染料도 우리나라 生産品이긴 하여도 부족하였던 것 같다.

世宗 22年 10月 條에

禮曹判書閔義生啓曰 今之朝士皆着靑衣染價甚重 自今各着深染黃玉色靑色衣如何, 上曰 玉色國初所常 然高麗人好著白衣之言見於中國史傳 土黃衣中國以爲凶服 深紅則近於女服 靑色則類於倭服 俱不可也 靑染雖價高至於軍士 皆已備之何難之有 況非常着之服乎 且草綠茶割柳靑三色服之可也 其更議之²³⁾

라 하여 지금 조정관리들이 대부분 靑衣를 착용하는데, 그 染價가 심중하니 앞으로 土黃, 玉, 靑 등으로 건의한 바, 王은 玉은 國初에 숭상하던 색이나 高麗人이 白衣를 好着한다는 말이 中國史傳에 보이고, 土黃衣는 中國人의 凶服이며 深紅은 女服에 가깝고 靑色은 倭服 같은 즉 不可하다. 비록 靑染價가 비싸나 軍士에 이르기까지 이미 갖추었고 더구나 常着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草綠, 茶割, 柳靑 三色은 可하니 論議토록 하였다.

또 中宗 23年 8月 條에는

大司諫柳潤德曰 奢侈成風莫於此時 至如草綠染色以過黑爲尙 昔日五六匹所染之靑今不能染一匹²⁴⁾

이라고 하여, 草綠色 물들일때 사치가 심하여 5, 6匹에 쓸 수 있던 것을 이제는 一匹도 모자랄 정도로 길게 들인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深染草綠衣에 대한 禁制는 同王 11年 6月, 31年 2月, 35年 6月 條에도 거듭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草綠色 染料가 되는 藍子(쪽)를 곡식을 심지 않고 밭에다 많이 심어 그 폐가 적지 않았기때문이었다. 한편 李瀾은 그의 星湖僿說類

選에서 紅衣와 染料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실종류를 染色하는 것으로 朱土를 사용한 것은 土紅이라 하고 蘇木을 사용한 것은 木紅, 紅藍을 사용한 것은 眞紅이라 한다. 木紅은 綿布에 적합하지 않아 鮮明하지 못하니, 지금 숭상하는 것은 다 紅藍으로 염색하는 것이고 土紅은 朱土물로서 그 찌끼를 없앤 뒤에 야교를 섞어서 염색하는 것이다. 國朝에는 이것을 최상의 색으로 여겼으니 이른바 土紅直領이란 것인데 世俗의 음에 “토(土)”를 “도(桃)”라고 하면서도 그 訛傳인 줄 모른다. 옛말에 “우리의 연지산을 탈취하니 부녀들이 안색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으니 土紅은 필시 선명한 빛깔로 사랑할만 한 것이건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세상이 점점 교만해지고 사치해져서 귀한사람이나 친한사람이나 다 紅藍을 사용하기 때문에 土紅은 사라졌다.

고 하였다. 이어서 李瀾은

지금 제도는 주상께서 赭色(붉은색) 곤룡포를 입는데, 위로 公鄕에서 아래로 掖隸, 胥徒에 이르기까지 죄다 紅藍으로 염색한 紅赤衣를 입으니 貴賤이 없을 뿐아니라, 高價여서 貧寒한 집에서는 장만하기 힘들다. 옷 한벌 염색하려면 그 藍심은 발이 네 식구가 한달 먹을 곡식이 나는 땅을 버리게 되니 國內 전체를 계산한다면 손실이 많다.²⁵⁾ 고 하였다.

이상에서 朝鮮王朝時代의 染料事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가장 論難이 많았던 染料가 蘇木이었으며, 거들된 服色禁制도 染料不足 때문에 내려진 것도 허다하였음을 알수 있겠다. 紫·紅 禁令에 있어서는 紫色이 王服의 색이며 紅色은 그에 가깝다 해서 내려지기도 하였지만 紫色染의 원료인 芝草, 紅色染의 원료인 蘇木과 紅花의 不足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前記 萬機要覺의 染織物價에서도 당시 白吐紬의 값이 매필 21兩이었는데, 草綠吐紬는 매필 23兩 1錢 4分로 별도 차이가 없는데 반하여 紫的吐紬는 46兩 8分으로 白吐紬價의 2배가 넘었고 大紅吐紬는 91兩으로 무려 4.5배에 달하였던 것이다. 또 綿布의 경우에도 白綿布와 大紅綿布가 각각 매필 18兩과 66兩 6錢 7分으로 약 3.5배에 달하였다.

芝草와 紅花는 비록 貴하나 우리나라에서 나기도 하지만, 蘇木은 本國所産이 아니고 倭人과의 貿易으로 輸入하여 왔다. 蘇木은 蘇枋木, 丹木, 木紅, 다목등으로 알려져 있는 다홍色(木紅, 大紅) 염료인데, 荳科에 속하는 常綠喬木으로 버어마 부근에서 자라는 것이다. 世宗 8年 12日 條에 蘇木이 倭人들이 가지고 오지만 실은 倭産이 아니고 海路一年餘걸리는 南蠻國産이라고 하였듯이 蘇木은 값 비싼 染料였던 것이다. 그래서 中國의 使臣들도 원하였고 우리나라에서 方物로 定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蘇木價가 비쌌던 까닭은

1. 蘇木이 本國所産이 아니었다는 점 외에도
2. 우리나라에서 公服이나, 女子 服飾으로 그 需要가 많았던 때문이었다.

朝鮮王朝時代의 公服은 經國大典에 紅·靑·綠과 靑의 四色으로 制定되어 있었다. 즉 袍는 一·二品은 다 紅, 三品の 正은 紅, 從은 靑, 四·五·六品은 靑, 七·八·九品은 綠이며, 品職者이외의 것은 대개 靑이고, 다만 法司는 皂, 諫院은 土黃, 公翁主는 草綠이었다. 그러나 定制 그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崔南善은 「朝鮮常識」에서 “그러나 朝臣의 服色이 반드시 定制대로 되지 않아 諸色이 雜用되고 成宗朝에 雅靑·草綠·木紅의 三色으로 정하였으되 이 또한 習用되지 못하고 언제부터인지 淺淡紅色을 習用하더니 宣祖 壬亂후에 君臣同色임을 피하여 朝官은 黑團領을 取케 하였으나 舊習에 젖어 이내토록 紅色을 從하고 正祖 丁丑에 堂下官의 靑綠袍制를 勵行하여 紅袍의 차차 減少를 보았다.”²⁶⁾고 하였다.

또 李瀾도 “세상이 교만, 奢侈해져서 위로 公鄕에서 아래로 掖隸, 胥徒에 이르기까지 죄다 紅藍으로 염색한 紅赤衣를 입었다고 한 바 있듯이 朝鮮王朝代에는 公服으로 紅袍를 주로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紅色은 옷안(衣裏)까지 많이 쓰였고, 女子 服飾에는 藍色과 더불어 主流를 이루었으며 衾枕色으로도 많이 쓰여 그 需要가 많았으니 紅染價는 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V. 結 論

이상에서 朝鮮王朝 社會의 全般的 服色 경향과 當代의 染料事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服色에 관하여 요약하면

1. 白色衣가 風俗을 이루어 계급의 上下를 막론하고 많이 입혀졌는데, 庶人들은 표백이 잘된 白色이 아니라 織色에 가까운 素色이었다.

2. 白色이외에는 黑色, 灰色 등 無彩色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3. 服色에 흐린색(淡色)계통이 많아, 玉色을 귀한 色으로 여겼으며 연분홍, 연노랑, 연두색 연灰色 등이 많이 쓰였다.

4. 服色이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그색이 原色的이며, 灰色調나 다른 色素가 포함되지 않은 純色인 경향이 있다. 그 대표적인 色이 紅色과 藍色이었다.

다음 染料관계에 있어서 보면 紅, 黃, 靑 三原色 가운데 紅色계통의 紅花, 芝草, 蘇木과 靑色계통의 藍이 문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 藍은 中宗代에 특히 부족하였던 것 같아 藍이 원료가 되는 草綠色衣가 자주 論議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사치가 심하여 곡식심을 밭에 藍을 심었기 때문이었다.

朝鮮王朝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紅色계통염료였다.

朝鮮王朝時代에 거듭되었던 紅·紫에 관한 服色 禁制도 紫色이 王服의 色이며, 紅色은 그에 가깝다고 해서 내려지기도 하였지만 染料不足도 실질적인 原因 중 하나였다.

紅色染料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1. 紅花와 芝草는 비록 貴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기도 하지만, 蘇木은 本國所産이 아니고 오로지 倭人들과의 貿易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더욱 부족하였다.

2. 染料價는 世宗 9년에 紫色 염료 가격이 一匹 염색하는데 또 一匹 값이 들며, 옷안도 모두 紅染

하므로 丹木(蘇木)과 紅花 값이 또한 비싸다고 하였으며 萬機要覽에는 紫的吐紬는 白吐紬 값의 2배가 넘었고 大紅吐紬는 거의 4.5배에 가까웠으며 大紅綿布도 白綿布의 3.5배나 되었다.

3. 이렇게 紅染價가 비쌌던 까닭은 國產品이 貴하다는 점외에도 公服이나 女子 服飾으로 需要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즉 조선왕조 시대에는 公服이 紅·靑·綠·皂의 四色으로 定하여졌으나 紅色衣가 주로 입혀졌고, 또 옷안까지 紅染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편 紅色은 藍色과 더불어 女子 服色의 主流를 이루었으며, 衾枕色으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이었다.

引 用 文 獻

1.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316, (1947)
2. 三國史記 卷三十九 雜志 第八
3. 經國大典 工典 工匠
4. 趙璣潛; 韓國經濟史, 日新社, 48, (1964)
5. 村山智順; 朝鮮의 服裝, 朝鮮總督府, 38, 1927
6. 三國志, 魏志 東夷傳 扶餘傳
7. 舊唐書 卷百九十九 新羅傳
- 8, 9, 10.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二十, 十九, 七
11. 李明姬; 韓國白衣에 관한 史的 考察, 全州大學教授論文集, 1976 참고.
12. 朴京子, 林純暎; 韓國衣裳構成, 修學社89, 90, 1976
13. 萬機要覽 財用編 供上, 各貢
14. 太宗實錄 卷二十一
- 15, 16, 17. 世宗實錄 卷三十四, 三十五, 八十,
18. 中宗實錄 卷三十四
19. 英祖實錄 卷六十九
20. 世祖實錄 卷四
21. 世宗實錄 卷三十四
22. 仁祖實錄 卷三十四
23. 世宗實錄 卷九十一
24. 中宗實錄 卷六十二
25. 李滉; 星湖廬說類選 上卷 三人事門 紅衣
26.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篇